

# <薯童謠>의 형성과정

류병윤\*

## <차례>

- 1. 머리말
- 2. <薯童謠> 관련 서사 기록문 검토
  - 2.1 구성 및 특성
  - 2.2 수록 과정
- 3. <薯童謠>의 형성과정
  - 3.1 <薯童謠> 관련 설화의 형성과정
  - 3.2 <薯童謠>의 형성과정
- 4. 맺음말

## 1. 머리말

<서동요>는 현전하는 향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노래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노래의 형성과정을 究明하는 것은 文學史的 의미가 크다. 물론 <서동요>의 형성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sup>1)</sup>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의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을 검토

\* 경기고등학교

- 1) 최근의 논의로는, 張成鎭, 『薯童謠의 형성 과정』, 『韓國傳統文化研究』 2,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정운채,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인문과학논총』 28, 건국대

하고 <서동요> 관련 설화의 형성과정을 밝혀서 <서동요>의 형성과정을 究明하려고 한다.

<서동요>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는 역사학적 관점,<sup>2)</sup> 불교학적 관점,<sup>3)</sup> 문학적 관점<sup>4)</sup>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동요> 연구에서 쟁점은 주로 薯童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백제의 왕과 결혼한 신라의 공주에 대한 사실이나 역사적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삼국유사』의 찬술자조차도 ‘武康王’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서동의 정체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더욱 많았다고 추정한다.

『삼국유사』의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은 상당히 설화적이다. 그런데 <서동요>의 형성과 관련된 종래의 논의에서 설화로서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결부시켜 논의해 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서동을 역사적 실존인물인 백제의 무왕<sup>5)</sup>으로 혹은 그 밖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짓는 논의<sup>6)</sup> 등이

인문과학연구소, 1996.

김종진,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27,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2004.

서철원, 『<薯童謠> 傳承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 『古詩歌研究』 第17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6.

신영명, 『<서동요>의 역사적 성격』, 『우리文學研究』 21집, 우리문학연구회, 2007 등이 있다.

2) 李丙燾, 『薯童說話에 대한 新考察』, 『歷史學報』 1, 역사학회, 1952.

김신기, 『쑈똥노래』, 『현대문학』 V. 13~7, 현대문학사, 1967.

지현영, 『서동설화 연구의 평의』, 『신라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2.

3)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75.

김영태,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고』, 『마한·백제문화』 1, 원광대, 1975.

4)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1972.

김병욱, 『서동요고』, 『백제문화』 7,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 1976.

김학성, 『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 1980.

이외에도 임기중, 황폐강, 박노준, 최 철, 윤영옥 등의 논의가 있다.

5) 梁柱東, 『古歌研究[訂補版]』, 博文書館, 1957, 448쪽을 비롯하여, 趙潤濟, 金思燁, 金東旭, 鄭鈺東, 李能雨, 具滋均, 趙芝薰, 金起東, 鄭炳昱, 金俊榮, 梁濂奎 등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薯童을 백제의 무왕으로 추정하고 있다.

6) 李丙燾는 서동을 東城王, 金善祺는 元曉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史在東의 비판이 있다. 史在東, 『薯童說話研究』, 『鄉歌麗謠研究』, 黃汎江 外 編, 二友社, 1985,

그것이다. <서동요>의 작자도 ‘서동’이라거나 백제의 ‘무왕’이라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sup>7)</sup> 실정이었다. 최근에는 <서동요>의 작자가 기자 조선의 ‘준왕’이라는 견해,<sup>8)</sup> 마한 건마국의 ‘무강왕’이라는 견해<sup>9)</sup> 등도 대두하였다.

여러 논란에도 <서동요>가 관련 서사 기록문의 설화적 문맥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동요>가 『삼국유사』에 기록되기 이전부터 관련 설화와 함께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을 검토하고 <서동요> 관련 설화의 형성과정을 밝혀서 <서동요>의 형성과정을 究明하고자 한다.

## 2. <薯童謠> 관련 서사 기록문 검토

### 2.1 구성 및 특성

『삼국유사』에 수록된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sup>10)</sup>을 단락을 나누어

223~229쪽.

7) 金鍾雨, 『鄉歌文學研究』, 三友社, 1976, 26쪽.

8) 조홍욱, 「<서동요> 작자 재론」, 『語文學論叢』 24,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5, 67-85쪽.

9) 신영명, 앞의 논문, 85~107쪽.

10)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武王.

① 第三十武王名璋

②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小名薯童 器量難測 常掘薯蕷賣爲活業 國人因以爲名

③ 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 [一作善化] 美艷無雙 剃髮來京師 以薯蕷餉閭里羣童 羣童親附之 乃作謠 誘羣童而唱之云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夜矣卯乙抱遺去如 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 將行 王后以純金一斗贈行 公主將至竄所 薯童出拜途中 將欲侍衛而行 公主雖不識其從來 偶爾信悅 因此隨行 潛通焉 然後知薯童名 乃信童謠之驗

④ 同至百濟 出母后所贈金 將謀計活 薯童大笑曰 此何物也 主曰 此是黃金 可致百年之富 薯童曰 吾自小掘薯之地 委積如泥土 主聞大驚曰 此是天下至寶 君今知金

2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 삼십대 무왕의 이름은 璋이다.

② 어머니가 홀로 되어 서울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다. 연못 속의 용과 교통하여 그를 낳았다. 어렸을 때 이름은 薯童이었다. 재능과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 어려웠다. 항상 마를 캐다가 파는 것으로 생계를 삼았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서동’이라) 이름하였다.

③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善花[혹은 善化]가 아름답기가 비길 데 없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왔다. 마을의 여러 아이들에게 마를 먹이니 아이들의 무리가 친해져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에 노래를 지어 아이들을 꺾어서 부르게 하였으니 이러하다.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夜矣卯乙抱遺去如). 동요가 서울에 가득 퍼져서 궁궐 안에까지 전해졌다. 백관들이 극력 간해서 공주를 귀양 보내게 하였다. (공주가) 장차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순금 한 말을 주어 노자로 쓰게 했다. 공주가 바야흐로 귀양지에 도착하려는데 서동이 도중에 나와 공주에게 절하면서 장차 모시고 가겠다고 하였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그저 괜히 미덥고 좋았다. 이로 인하여 공주를 수행하면서 비밀히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았다. 그리하여 동요의 영험함을 믿게 되었다.

之所在 則此寶輸送父母宮殿何如 薯童曰可 於是聚金 積如丘陵

⑤ 詣龍華山師子寺知命法師所 問輸金之計 師曰 吾以神力可輸 將金來矣 主作書并金置於師子前 師以神力 一夜輸置新羅宮中 眞平王異其神變 尊敬尤甚 常馳書問安否

⑥ 薯童由此得人心 卽王位

⑦ 一日 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填池事 以神力一夜頽山填池爲平地 乃法像彌勒三 會殿塔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 [國事云王興寺 眞平王遣百工助之 至今存其寺[三國史云 是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

- ④ (공주가 서동과) 함께 백제로 와서 왕후가 준 금을 꺼내 놓고 장차 생계를 꾸릴 것을 꾀했다. 서동이 크게 웃고 말하기를, “이게 무엇이오?”하니, 공주가 말했다. “이것은 황금이니 가이 백 년의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동이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마를 캐던 곳에는 이것이 진흙처럼 쌓여 있소.”라고 하니, 공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천하의 가장 큰 보배다. 그대는 지금 금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이 보배를 우리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서동이 “좋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금을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 ⑤ 용화산 사자사의 知命法師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것을 실어 보낼 방법을 물으니 법사가 말하기를, “내가神通한 힘으로 보낼 터이니 금을 이리로 가져 오시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공주가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금을 사자사 앞에 갖다 놓았다. 법사는神通한 힘으로 하룻밤 동안에 그 금을 신라 궁중으로 보냈다. 진평왕은 그 신비스러운 변화를 경이롭게 여겨 (서동을) 더욱 존경하게 되고 항상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 ⑥ 서동이 이로 말미암아 인심을 얻어서 왕위에 올랐다.
- ⑦ 하루는 왕(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이 연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했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니, 왕은 그것을 허락하였다. 곧 지명법사에게 가서 연못을 메울 일을 물어보니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헐어 연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여기에 미륵삼존의 상을 만들고 회전과 탑과 낭무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國史에서는 왕흥사라고 했다]라 했다. 진평왕이 여러 공인들을 보내서 그 역사를 도왔는데 그 절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三國史』에는 이는 법왕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홀로 된 여자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

위 기록문은 역사적 사실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몇 가지 설화적 모티프를 유기적으로 구성한 이야기에 가깝다. 서동의 출생담(②)은 ‘異類交婚’이라는 설화적 모티프를 재현한 것이며, 서동의 계략에 의한 혼인(③)은 ‘혼사 장애 극복’의 설화적 모티프로 볼 수 있다. 뜻밖에 보물을 얻는다는가(④), 초인적인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나른다는가(⑤), 신령한 존재가 못에서 나타났다는가(⑦), 하룻밤 사이에 못을 메운다는가(⑦) 하는 등 ‘무왕’조 기사의 주요한 대목은 역사적·현실적이기보다는 거의가 설화적 요소로 볼 만한 것들<sup>11)</sup>이다.

위 기록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마를 캐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서동이 계략을 써서 선화공주를 아내로 취하고 왕으로까지 신분이 상승한 이야기와 부인(선화공주)의 청으로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한 이야기다. 곧, 서동설화(①, ②, ③, ④, ⑤, ⑥)와 미륵사 창건 연기담(⑦)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서동설화에서 서동이 선화를 취하는 대목과 황금을 왕께 바쳐 응분의 신분상승을 한다는 대목은 일관성 있는 설화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륵사 창건 연기담은 서동설화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억지로 끝에 가져다 붙인 것 같은 인상조차 든다. 내용 전개 면에서 서동설화는 설화적 성격이 강한데 반하여 미륵사 창건 연기담은 전설적 성격이 강하다. 결국 서동설화와 미륵사 창건 연기담이 부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삼국유사』 ‘무왕’조의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이다.

그런데 위 기록은 전체적 맥락에서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륵사를 창건하게 한 주체는 백제의 서동인 무왕이 아니라 선화공주이다. 곧 미륵사는 선화공주의 요청에 의하여 창건되었다는 것이다. 미륵사 창건의 중심에 선화공주가 있다. 결국 선화공주의 주도적 역할을 내세움으로써 선화공주를 매개로 미륵사 창건 연기담과 서동설화를 연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미륵사 창건에 무왕과의 관련성을 말

11)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288쪽 참조.

하기 위하여 서동설화를 끌어들이는 장치라 추정한다. 이야기의 중심은 미륵사 창건 연기담일 뿐이다. 불승인 지명법사가 서동설화에서 황금을 하룻밤 동안에 신라 궁중으로 보내고,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서 연못을 메우는 등 큰 도움을 주는 이야기는 불교적이다. 이것도 이 기록의 초점이 미륵사 창건 연기담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서동설화보다는 미륵사 창건 연기담이 중심이고, 여기에 무왕과 관련이 있는 설화, 곧 서동설화를 끼워 넣은 것이다. 그래서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 서동설화가 선화공주를 매개로 부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다. <서동요> 관련 기록문은 미륵사 창건을 초점으로 선화공주를 축으로 하여 서동설화와 결합된 것이다.

긴밀하지 못한 설화의 결합으로 인하여 내용 전개에도 어색한 점들이 보인다. 백제의 소년인 서동은 백제 땅에서 얻은 황금을 모두 신라 궁전으로 보내자는 선화공주의 제의에 한 마디 이의도 없이 순순히 따르고 있다. 서동이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주를 취한 데 대한 죄책감에서 신라 왕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기에는 이야기 전개가 자연스럽지 않다. 신라의 환심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선화공주가 아닌 서동이 먼저 능동적으로 나섰어야 한다. 곧 주체가 서동이어야 상황에 어울리고 이야기 전개도 순조롭다. 특히 신라 궁전으로 황금을 보낸 일로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는 것도 순조롭지 못하다. 백제의 황금을 신라 궁중에 보낸 일로 말미암아 백제의 민심을 얻어 백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당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제와 신라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의 보배를 신라에 보냈다면 서동이 신라 백성의 인심을 얻었다고 하여야 순리일 것이다. 더구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신라의 인심을 얻어서 백제의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야 타당하다. 이 경우 서동이 백제로부터 지탄을 받고, 죄를 물었어야 올바른 경우라 추정한다. 그런데, 백제로부터 민심을 얻어 백제의 왕으로 추대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신라적 관점에서 서동설화를 말한 결과일 것이다.

이 대목만 국한하여 보면 미천한 소년이 부당한 방법으로 (혹은 우연한 기회로) 공주를 취하였다가 우연히 손에 넣게 된 황금이나 보배를 바쳐서 (혹은 무예나 재능을 발휘하거나 큰 공을 세워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 마침내 정식으로 부마의 자격을 인정받는다든 설화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연설화<sup>12)</sup>와 같은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破鏡奴설화에서도 볼 수 있다. 파경노는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정승의 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마침내 성례하고 또 그로인하여 크게 출세한다. 이 역시 똑똑하나 신분이 미천한 소년이 피를 써서 고귀한 여성을 취하여 출세한다는 설화적 유형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동은 미천한 사나이로서 남다른 피를 써서 공주를 취하여 신분 상승을 이루는 설화적 주인공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화공주의 결연설화에서 백제와의 관련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서동은 신라의 서민 출신이고, 황금을 켤 장소도 신라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유의 결연설화로는 가장 무난했다<sup>13)</sup>고 할 수 있다. 서동을 선화공주와 동일하게 신라의 소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야기 전개과정에서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서동설화의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면을 보이는 이유는 원래 백제의 서동설화가 신라적 관점으로 變改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취하는 과정이 신라에 모욕적이기까지 한 점도 원래의 서동설화가 신라의 것이 아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또 다른 단서이다. 선화공주가 나중에 서동을 알아보고 노래의 영험을 믿을 정도로 영민하지 못하다. 특히 이야기의 전체 전개를 보면 서동이 선화공주를 얻기 위한 계략을 신라인들이 모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서동이 나중에 황금을 신라 궁전으로 보내주게 되어 신라 진평왕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였다고 하였다. 신라 궁중에서 선화공주를 궁궐에서 내칠

12) 『三國史記』卷 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 참조.

13) 황경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288~290쪽 참조.

수밖에 없도록 노래를 만들어 퍼뜨린 이가 바로 서동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서동설화가 원래부터 신라의 것이었다면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제의 서동설화가 어떤 사정에 의하여 신라적 관점에서 전승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내용 전개가 어색하거나 신라에 다소 모욕적인 요소들이 흔적기관처럼 남아 있다고 추정된다.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은 무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여기에 무왕과 관련된 설화인 서동설화가 결합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륵사를 창건한 경위를 말하고 있는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 서동설화가 신라적으로 변형되거나 윤색되어 결합된 것이다.

<서동요>는 서동의 신분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지 사건 전환의 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서동요>의 노래말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곧, 황금을 얻은 이야기(④), 신통력으로 많은 황금을 나른 이야기(⑤), 산을 헐어 못을 하룻밤 사이에 메웠다는 이야기(⑦),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이야기(⑦) 등은 <서동요>의 형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요컨대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은 무왕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무왕과 관련된 미륵사 창건 연기담이 중심이다. 백제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 설화적 인물인 선화공주를 매개로 서동설화와 결합한 것이다. 설화적 존재인 선화공주를 매개로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 서동설화를 신라적 발상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실제 <서동요> 관련설화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서동요>는 서동의 신분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지 사건 전환의 한 계기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서동요>의 형성과정을 구명하려면 미륵사 창건 연기담보다 서동설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야 할 것이다.

## 2.2 수록 과정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설화적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역사적 실존 인물인 백제 무왕의 사실과는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sup>14)</sup>

『三國史記』에는 무왕이 法王의 아들로 명시되어 있으나,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에는 혼자 사는 여인이 못의 용과 관계하여 낳았다고 한다. 미륵 캐어 생계를 꾸려가던 서민으로 그려져 있다. 동일한 『삼국유사』의 기록임에도 ‘王曆’편에서는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을 ‘一耆篩德’이라 하고, ‘무왕’조에서는 ‘서동’이라 하여 그 둘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 또 신라 진평왕과 백제 무왕이 翁婿關係로서 두 나라가 우호적이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 백제의 성왕이 신라에 敗死한 후 두 나라는 仇讐關係로 내려왔다. 무왕은 바로 성왕의 증손이다. 백제 무왕 때에 백제와 신라의 대립관계가 호전되었다는 아무런 시사도 『사기』에서 찾아 볼 수 없다<sup>15)</sup>고 한다. 특히 앞에서 인용한 기록문 ⑦의 끝부분 割註에서 『삼국유사』의 찬술자 스스로도 확실하지 못하고<sup>16)</sup> 있다.

‘왕력’편에서는 백제의 제30대 왕을 ‘무왕’이외에 ‘무강’이나 ‘헌병’이라 기록하고 兒名인 ‘일기사덕’까지 並記하였다.<sup>17)</sup> 반면 ‘무왕’조에서 찬술자가 古本에는 무강이라고 했으나 잘못이고 백제에는 무강이 없다<sup>18)</sup>고 한 것은 서동설화를 수록한 고본에는 왕명이 ‘무왕’이 아닌 ‘무강왕’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왕’조와 ‘법왕금살’조의 할주<sup>19)</sup>가 “古本作武

14) 李丙燾, 앞의 논문, 52쪽.

15) 위와 같음.

16) 三國史云 是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 연구자들이 <서동요>에 대하여 나름대로 논의를 전개시키면서 그에 따른 반론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이 기록과 무관하지 않다.

17)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三十武王 或云武康 獻丙 或小名 一耆篩德 庚申立 治四十一年.

18) 위의 책, 卷第二 紀異 第二 武王. 割註에 “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라고 함.

康”과 “興古記…”인 것으로 보아 ‘왕력’편에 기록된 왕명이나 아명은 古本이나 古記를 참고하여 기술했으리라 추정한다.

『삼국유사』 ‘법왕금살’조에서는 법왕이 미륵사 창건의 토대를 닦았고 무왕이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무왕’조에 나타난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기록에는 법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무왕이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왕 관련기록이 조목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삼국유사』 찬술자가 사용한 전거가 하나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삼국유사』 찬술자가 ‘무왕’조에서 전거를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삼국유사』 조목명의 할주나 다른 조목의 할주에 ‘고본’, ‘고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왕’조의 기록에도 참고한 전거는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따라서 『삼국유사』 찬술자가 여러 전거를 참조하고 구비전승물을 결합하여 ‘무왕’조에 기록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기록문 끝의 할주에 부기된 “알 수 없다[未詳]”는 표현은 ‘무왕’조의 기록에 참조한 전거들이 여럿이고 서로 내용이 다르고 복잡하였음을 의미한다. 『삼국유사』의 찬술자가 여러 전거를 참조하는 가운데 스스로 혼란에 빠졌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것은 문헌설화와 구전설화의 관련 양상<sup>20)</sup>처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찬술자도 <서동요> 관련 설화들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록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삼국유사』의 찬술자가 백제에 ‘무왕’이 없다고 고본의 기록을 무시하고, 이와 음상이 유사한 ‘무왕’으로 고쳐 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찬술자가 여러 전거를 참고한 점과 『삼국유사』 찬술자의 찬술 태도 및 수록 경위에 관한 기왕의 연구 성과<sup>21)</sup> 등으로 미

루어 『삼국유사』 찬술자가 개인적 취향이나 의도에서 신라 중심적이고 불교적인 것으로 윤색하거나 개작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삼국유사』 찬술자가 여러 전거에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전거로 삼을 만한 기록이 많이 있었고, 내용이 상이한 것도 많았음을 말해준다. 또한 <서동요> 관련 설화가 시대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변이되어 전승되고 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거의 성립 시기에 따라 설화의 내용이 상이하어 『삼국유사』 찬술자가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전하는 『삼국유사』의 <서동요> 관련 기록은 최종적으로 신라적 관점에서 미륵사 창건 연기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동설화도 신라화 되어 결합된 것이다. 미륵사 창건 연기담과 서동설화를 결합한 주체가 민중이었는지 『삼국유사』 찬술자의 윤색이었던지를 확실히 밝힐 근거는 아직 없다.

### 3. <薯童謠>의 형성과정

#### 3.1 <薯童謠> 관련 설화의 형성과정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은 서동설화와 미륵사 창건 연기담이 결합되어 있다. <서동요>는 서동설화에서 사건전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미륵사 창건 연기담과는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서동요>의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우선 서동설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형성과정을 구명하려면 현전하는 서동설화는 신라적 관점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서동설화의 원래

19) 위의 책, 卷第二 紀異 第二 武王. 武王[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  
위의 책, 卷第三 興法第三 法王禁殺. 興古記所載小異 武王是貧母與池龍通交而所生小名薯蕷 卽位後謚號武王 初與王妃草創也.

20) 구전설화와 문헌설화의 관련양상은 ① 구전→구전 ② 구전→기록 ③ 기록→구전 ④ 기록→기록 ⑤ 여러 양상이 혼합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왕’조는 전거로 삼았을 만한 것이 있되 알 수 없는 부분(未詳)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러 양상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전·문헌설화와의 관계는 최인학, 『구전설화 연구』, 새문사, 1994, 12~13쪽 참조.

21) 이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 중에서 여러 전거와 관련하여서는 權相老, 譯解『三國遺事』, 東西文化社, 1978, 解題, 24-51을, 『三國遺事』의 수록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이영태, 『『三國遺事』所載 鄉歌 研究-背景說話의 收錄經緯를 中心으로-』,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7 등 참조.

모습을 밝혀야 한다.

서동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많은 공감을 얻은 다음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卽 民衆들은 以前의 歷史的 事實로 話題를 불러 일으켰던 百濟 東城王 牟大와 新羅 貴族出身 女人과의 國籍을 超越한 結婚에 刺戟받아, 이 충격적이고 과격적인 結婚을 生素材로 삼아, 一個 微賤한 庶民出身도 貴族女人과의 로맨스가 可能할 수 있다는 念願에 의해 薯童說話를 創作한 것으로 보인다. …… 이 說話의 形成 및 傳承에는 民衆들의 興味素가 강력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 貴族層은 이것을 受容하되 자기네 階層의 趣向과 價値觀에 걸맞게 民衆說話를 變異化시켜, 主人公 薯童의 身分을 一個 微賤한 마장수에서 百濟武王의 變身으로 上昇시키고, …… 이 때 貴族層의 目的素가 傳承素로 作用했을 것이다. …… 이에 佛寺의 靈驗을 爲한 效用素의 作動으로 當代의 高僧인 知命法師를 끌어들여 그의 神通力이 添加되어 佛敎的인 潤色과 敷衍이 일어났으니<sup>22)</sup>

위 논의에서 서동설화가 귀족층의 개입으로 인해 무왕설화로 재생산된 경위를 흥미소, 목적소, 효용소를 적용시켜 밝히고 있다.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은 백제 무왕의 실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인물의 차용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왕’조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설화에서는 역사적 소재(인물, 사건, 지명, 시대 …… 등)의 차용은 별 부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23)</sup> 단순한 차용에 지나지 않는 역사적 소재를 가지고, 필요 이

상의 역사적 천착을 하는 것은 설화 연구를 위해서나, 또 역사 연구를 위해서나 똑같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서동요> 관련 설화에 관하여 『삼국유사』 찬술자가 너무도 시대를 망각 혹은 무시한데서 범한 오류라<sup>24)</sup>는 사학자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당연하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미 기록문의 끝부분 할주에서 “此傳之獨女之子未詳”라고 하여 『삼국유사』 찬술자가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무왕’조의 기록에 사용한 전거들이나 구비전승물들이 서로 내용이 다름에 대한 『삼국유사』 찬술자의 고민을 드러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동-맛동’을 음상으로 보아 ‘牟大’<sup>25)</sup>의 이름을 가진 백제의 동성왕과 관련짓거나 무강왕의 속칭을 ‘末通大王’으로 부른다고 하여 연결 짓는 것<sup>26)</sup>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단순히 음상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동일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서동설화와 미륵사 창건 연기담의 결합에 대하여 백제 멸망 후 신라의 비호를 받기 위해 미륵사의 사중이 그 절의 연기담을 서동설화와 관련지어 조작하였다는 견해<sup>27)</sup>가 있었는데, 그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다. 미륵사 창건과 관련하여 ‘무강왕’의 연기담이 사중 사이에 유포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선화가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로 역사화 되고, 서동도 설화적 인물로부터 역사적 인물로 탈바꿈하였을 것이다. 이 두 설화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무강왕’은 음상이 유사한 백제의 실존 인물인 ‘무왕’으로, 이와 대응하여 선화는 신라 진평왕의 공주로 역사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합과정에서 서동설화의 서동이 미륵사 창건 연기담의 무강왕 혹은 무왕과 일체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동설화를 미륵사 창건과 관련지어야 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서동을 미륵사 창

22) 김학성, 『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 1980, 331~333쪽.

23) 史在東, 『薯童說話研究』, 『鄉歌麗謠研究』, 黃湜江 외 編, 二友社, 1985, 242쪽. 史在東은 베른하임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게 된 어떤 事物(자연 및 인공물, 지명, 관습 및 제도, 呪文 및 歌謠 등)에 대하여, 민중은 갖가지 그럴 듯한 說話를 만들어 내고 이것을 다시 既知의 역사 사건과 결부시켜서 설명하려고 드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였다.

24) 李丙燾, 앞의 논문, 53쪽.

25) 『三國史記』 卷 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東城王 諱牟大[或作摩牟]

26) 梁柱東, 앞의 책, 448쪽.

27) 金東旭, 『국문학개설』, 民衆書館, 1961, 34쪽.

건과 관련 있는 백제의 왕에 부회하였을 것이다. 신라 설화와 백제 설화의 결합과정에서 역사성을 무시한 역사화는 양자의 절충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여기서 역사적 요소와 설화적 요소 사이의 충돌이 생겨났고, 아울러 부자연스러운 결합이 수반된 것이다.

무왕과 미륵사가 신라와 지닌 인연을 강조하고 그 성격을 변형시킨 이유는 신라의 집권층이 무왕 시기에 완성된 백제 국가사상으로서 미륵신앙이 지닌 사회적 효용성에 주목하고, 그 본義를 자기화했던 성과 때문이다.<sup>29)</sup> 백제 웅주 水原寺에서 彌勒仙花를 모셔오려 한 진자의 일화는 당시 신라가 백제의 미륵신앙과 접촉하고 이를 수용·자기화하고자 했다는 사실의 설화적 표현이다. 김유신의 ‘龍華香徒’ 제창 등 화랑이 미륵신앙과 결부하여 군사조직화 되어가는 것도 이 무렵이다. 신라가 자랑하는 半跏思惟像 역시 백제로부터의 사상사적 영향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징후를 토대로 ‘백제불교의 東漸’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다.<sup>30)</sup>

<서동요> 관련 설화의 성립 배경 중 하나로 이러한 신라의 백제문화 애호와 탐닉을 들 수 있다. 신라인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백제의 사상을, 특히 미륵-유식과 관련하여 애호했다. 백제유민 출신인 경흥은 유식학의 대가<sup>31)</sup>로서 신문왕대 先王의 유언에 따라 國老가 된다. 백제계 인물인 진표는 호남·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미륵신앙·실천적 유식학·점찰계 등 백제의 특성이 강한 불교운동을 벌였는데, 경덕왕이 그에게 보살계를 받아 제자를 자처했다.<sup>32)</sup> 정치·사회적으로는 신라에 패했으나 사

상적 관점의 승자는 백제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의 승자인 신라의 입장에서, 국가사상으로서 미륵신앙의 기원을 신라와 府會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리라는 가설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古新羅 건국초기부터 있어 온 靈肉一體의 미의식<sup>33)</sup>을 단초로 선화공주의 美가 서동을 움직여 정치적 영웅으로 만들고, 국가사찰을 건립한 문화적 영웅으로까지 장성시켜서 미륵사 창건 연기담의 배경을 변화시킨 것이다.

신라는 통일전쟁을 전후하여 백제로부터 불교적 국가사상으로서 미륵신앙, 유식사상 등을 수용했다. 백제가 성왕대부터 모색한 미륵신앙의 상징물로서 ‘미륵사’를 건설하자 신라에서도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는 등 이를 강하게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정치·사회적 이유로 신라의 미륵신앙이 백제보다 그 본義에 가깝게 되었고, 백제가 주도한 문화사적 전개와는 다른 새로운 자리 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했다.

이 때문에 <서동요> 관련 설화에서 침략자 무왕을 ‘신라적 美(주체)’에 의해 정치적·문화적 영웅이 되는 ‘서동’(객체)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신라와 백제의 관계 또한 신라의 주도에 따라 평화적인 것으로 되도록 구성하였다. 설화에서 새롭게 배치된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미륵신앙의 수용에 대한 사실과 구별되는 역사적 상상력의 바탕이 되었다. 이는 미륵신앙의 단순 수용을 넘어 새로이 내재화시킨 것이다.<sup>34)</sup>

막대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국가사찰 미륵사가 ‘신라공주의 소원’으로써, 그의 영향으로 왕이 된 서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서동요> 관련 설화 속의 이야기는 ‘신라주체-백제객체’라는 지형도를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sup>35)</sup> 게다가 미륵사 창건 이후, 신라는 황룡사탑 건축을 비롯한 국가사찰의 重建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신라가 미륵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 강하게 의식했다는 증거이며, 국

28) 황폐강, 앞의 책, 295~296쪽.

29) 서철원, 앞의 논문 220쪽. 이와 관련한 이후의 논지 전개는 이 논문에 기댄 바가 크다.

30) 신종원, 「신라 불교전래의 제양상」, 『신라초기불교사상연구』, 민족사, 1992; 2001 <증보판>, 133-135쪽 참조.

31) 『三國遺事』 卷五 感通 第七 懷興遇聖. 그의 저술로 현전하는 것은 3종에 불과하지만 본래 40종의 논설 중 10여 편 이상이 유식학 관계라고 한다. 이만, 「신라 경흥의 유식사상」, 『한국불교학』 32, 한국불교학회, 2003, 27~28쪽.

32) 위의 책, 卷四 義解 第五 眞表傳簡.

33) 이병도, 『한국고대사회와 그 문화』, 서문당, 1973, 279~292쪽.

34) 서철원, 앞의 논문. 223쪽.

35) 위와 같음, 219쪽.



가사상으로서의 불교의 해석과 정립에 경쟁했던 양국관계를 보여준다.

서동설화는 신라와 백제 간의 역사적 긴장기에 목적소에 의해 이야기가 변개 되고, 이후에 미륵사 창건 설화로 최종 변개된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미륵사 창건 연기담이 중심이고 여기에 무왕과 관련된 설화인 서동설화가 결합된 것이다. 결합 시기는 통일신라 이후일 것이다. 백제와 신라의 역사적 긴장기에 형성된 원래의 <서동요> 관련 설화는 신라 궁중을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것이다.

선화공주의 미를 흠모하였다거나 신라에 황금을 보내서 인심을 얻어 왕이 되었다는 내용은 후대에 신라 적으로 변개된 것이다. 현전하는 『삼국유사』의 <서동요> 관련 설화는 최종적으로는 신라 중심으로 변개된 것이다. 원래의 <서동요> 관련 설화는 서동이 주체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후대에 신라적으로 바뀌면서 선화공주가 주체로 바뀌었다. 현전하는 <서동요> 관련 설화는 주객이 뒤바뀐 것이다.

<서동요> 관련 설화를 현전하는 것처럼 변형한 주체는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논의한 대로 통일 신라 시대에 미륵사 창건 연기담을 중심으로 변형된 것이라면, 통일 신라 의 지도자나 민중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삼국유사』 찬술자에 의한 편집 및 윤색이나 개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대로 『삼국유사』 찬술자의 수록 태도나 여러 전거를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적다. 미륵사 창건 연기담은 신라의 입장에서 변개된 것이다.

### 3.2 <薯童謠〉의 형성과정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문에 따르면 <서동요>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차지하기 위해 궁리해낸 술책으로 부른 노래이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선화공주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사실무근의 소문이 퍼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선화공주가 궁지에 빠지고, 마침내 신라의 궁중에서 축출당하게 된다. 그리고 서동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선화공

주를 구해 준다. 여기서 <서동요>는 이른바 ‘병 주고, 약 주는’ 양면작전에서 ‘병’ 구실을 한 설화적 소재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동요> 관련 설화에서 공주를 궁지에 몰아넣은, 서동의 떳떳치 못한 술책의 진상은 공주나 신라 궁중에 끝내 알려지지 않는다. <서동요>의 피해자인 선화공주는 노래에 서동의 이름이 나오는 데서 오히려 노래의 영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궁지에 빠뜨린 사실무근의 노래를 지은 사람이 서동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청자(혹은 독자)는 다만 그 결과가 좋으니, 그 정도 눈감아 주어도 무방하다는 태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데 주인공이 끝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노래의 영향을 믿게 된 공주의 태도에 청자(또는 독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오히려 ‘노래의 영험’이라는 허상을 독자만큼 갈파 못하는 공주의 처지(설화 자체의 허점에서 결과한 것이기는 하나) 때문에도 설화적 완결을 지었다고 하기에 주저하게 된다.<sup>36)</sup>

무왕조의 내용을 보면 무왕이 신라에 잠입하여 선화공주를 얻는 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백제 무왕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노래는 백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동이 신라 궁중으로 황금을 보내는 부분은 신라 입장에서 첨가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노래의 최종 변개에 중심을 둘 때 <서동요>는 백제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노래의 최종 변개는 무왕 시대에 이루어졌으나, 통일 신라 이후 <서동요> 관련 설화의 첨가와 부연에는 신라인들에게 우호적인 측면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것은 진평왕이 서동을 사위로 인정한 후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제 왕실이 신라 왕실의 인정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삼국통일의 당위성까지 연결시키는 데에 알맞은 설화로 발전했을 것이다. 다만 서동이 동요의 가사를 바꾸어 유포시킨 <서동요>는 가사책류에 3

36) 황패강, 앞의 책, 297쪽 참조.

분절로 정착한 반면 관련이야기는 전승소의 개입에 노출됐을 것이다.

신라 왕실의 공주가 외간 남자를 몰래 안고 간다는 노래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신라 입장이 아니라 백제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누구는 누구와 무엇 했대요’라는 기존의 노래형에 ‘누구’와 ‘무엇’을 변개시킨 백제의 의도는 당대의 적대관계에 있던 신라 왕실을 비방하려 했던 것 같다.

성왕이 신라에게 배반을 당한 이후 의자왕에 이르기까지 백제는 신라와 많은 전투를 해야 했고 그에 따라 비방도 상당했을 것이다. 마침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누구는 누구와 무엇 했대요’라는 동요에 ‘누구’와 ‘무엇’을 변개시켜 적국의 왕실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 자국 백성들의 상대적 우월감을 부추기는데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역사적 긴장기를 겪으면서 민요나 동요는 주체자들에 의해 생성·변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동요> 또한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彼此 侵攻이 한창 甚하여 仇讎關係에 있었던 것……武王의 曾祖인 聖王 晩年(新羅 眞興王時)에 新羅와의 共同北伐에 依하여 獲得한 南北漢城 등 漢江下流域의 地를, 新羅의 背信的侵略으로 新羅에게 빼앗긴 후, 더욱이 百濟의 聖王이 新羅의 營山城(今沃川)을 치다가 敗死의 辱을 당한 이후로는, 兩國의 關係는 이미 仇讎化하여……<sup>37)</sup>

성왕부터 의자왕에 이르기까지 백제와 신라는 국경문제로 적대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양국간의 긴장이 극도로 첨예한 가운데 기존의 노래가 최종적으로 변개된 것은 무왕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동요>의 작자는 결코 역사적 인물인 백제 무왕일 수는 없다. 굳이 작자를 말한다면 관련기록문의 내용대로 백제의 소년 서동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37) 이병도, 앞의 논문, 52~53쪽.

<서동요>가 목적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윤색된 시기를 무왕 때로 상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로 『삼국유사』 ‘무왕’조의 할주<sup>38)</sup>를 들 수 있다. 할주에서 무왕과 관련된 여러 전거를 활용했던 찬술자가 무강왕이 아니라 무왕이라 고집하고 있다. 물론 조목명을 ‘武王’이라 했던 것을 결부시켜도 마찬가지다. 편목과 조목에 대한 안내에는 찬술자 나름대로의 고민이 깃들어 있게 마련일 것이다. 백제 무왕조에 <서동요>를 넣은 것은 고민의 결과로 <서동요>가 백제 노래라는 찬술자의 인식도 있었을 것이다.

무왕의 시기에 와서 이 노래가 최종적으로 개사된 이유는 신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백제의 당대 상황과 관련이 깊다. 적대관계의 상황에서 백제 무왕과 신라공주의 혼인을 매개했던 <서동요>가 생성된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역사적 긴장기와 결부된 ‘-謠’ 계통의 노래를 다른 문건에서 찾아 그 성격을 파악한다면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다.

태조가 백마를 타고 彤弓과 白羽箭을 가지고 언덕 위에 서서 군사가 모두 건너기를 기다리니, 軍中(軍中)에서 바라보고 서로 이르기, “옛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하였다. 이때 장마가 수일 동안 계속했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다가, 군사가 다 건너가고 난 후에 큰물이 갑자기 이르러 온 섬이 물에 잠기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이때 동요에, “木子가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軍인과 백성, 늙은이와 젊은이를 막론하고 모두 이것을 노래하였다.<sup>39)</sup>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기 전에 고향 마을에 퍼져 있던 동요다.  
“西京城 밖에는 불빛이 나고, 安州城 밖에는 연기가 나네. 그 사이를 왕래

38)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武王. 割註에 “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라고 함.  
39) 『高麗史』 卷137 列傳 五十 辛禡 第五 太祖乘白馬 御彤弓白羽箭 立於岸遲 軍畢渡 軍中望見相謂曰 古今來世安有如此人乎 時霖潦數日水不漲 師既渡大水驟至 全島墊沒 人皆神之 時童謠有木子得國之語 軍民無老少歌之.

하는 이원수, 원컨대 백성을 구제해 주오.” 얼마 안 되어 회군하는 거사가 있었다.<sup>40)</sup>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긴장기에 불려진 위의 노래는 역성혁명을 주동했던 자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려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역사적 긴장기의 동요는 사건의 주동자들에 의해 얼마든지 생성·유포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동요 곡조에 가사를 변경시켜야 유포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서동요>는 고래로부터 전해 오던 노래의 형에 ‘누구’와 ‘누구’를 변경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관련 기록문에도 보이는 것처럼 <서동요>의 밑바탕은 동요다. 이러한 유형의 동요가 근자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유형의 전래 동요들과 <서동요>의 모티브가 매우 유사하다. 이런 유형의 동요에서 노래 불려지는 대상을 서동과 선화공주로 대치하여 부른 것이다.

‘-요’ 계통에 속하는 노래의 작자를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은 개인 창작이 아닌 공동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이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를 개사한 것이다. ‘-요’는 민요나 동요와 관련이 깊다. 악기의 반주가 따르고 곡조가 있는 ‘歌’와 달리 단지 부르는 노래인 ‘謠’이다.<sup>41)</sup> 그래서 <서동요> 관련 기록문에도 ‘作歌’가 아니라 ‘作謠’로 표현한 것이다. 노래명도 ‘-가가 아닌 ‘-요’이다.

개사는 평소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 동요의 개사는 그 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의 기록도 이런 예의 하나라 추정한다.

姣貞이 南毛를 질투하여 남모에게 술과 음식을 성대히 베풀어 취하게 됨에 몰래 北川 가운데에 돌을 들어 그 속에 묻어 남모를 죽였다. 그 무리들은 남모가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슬피 울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그 음모를 아는 자가 있어서, 노래를 지어 거리의 어린 아이들을 피어서 부르게 하니, 남모의 무리가 듣고 그 시체를 北川 속에서 찾아내고 姣貞娘을 죽여버렸다.<sup>42)</sup>

‘무왕’조가 복잡한 수록경위를 겪었다고 할 때 <서동요>가 어느 단계에 수용되었는가를 정확히 지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현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서동요>의 내용으로 보아 효용소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서동요>는 흥미소와 목적소의 개입과 관계가 있음직한데, 가사의 내용이 ‘조선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 것으로 보아 흥미소와 연관성이 가깝다. 흥미소와 매개된 설화는 귀족층이 내세운 목적소의 개입으로 그들의 취향에 맞게 부분적으로 變改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사의 변개도 불가피했을 것이다.<sup>43)</sup>

이 노래가 ‘누구는 누구와 무엇 했대요’라는 유형의 동요<sup>44)</sup>라면 노래를 부른 담당층에 의한 가사의 변개는 필연적이다. 마지막으로 불사의 영험을 위한 효용소의 개입은 미륵사 창건과 무왕을 연결시켰지만 노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누구는 누구와 무엇 했대요’라는 동요인 <서동요>에서 불사와 관련된 분위기는 엿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서동이 공주를 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짐으로써 기존의 동요를

40) 『大東野乘』 卷53 東閣雜記 上. 威化回軍之前 潛邸里童謠 西京城外火 色安州城外煙光 往來其間李元帥 願言救濟黔蒼 未幾有回軍之舉.

41) 『詩經』 卷三 魏風 <園有桃>의 ‘心之憂矣我歌且謠’ 부분의 ‘가’와 ‘요’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曲合樂曰歌 徒歌曰謠(곡조와 악기가 결합하는 것이 歌이고, 그대로 노래하는 것이 謠이다), 朱熹 註에는 ‘合曲曰歌 徒歌曰謠’로 되어 있다.

42) 『三國遺事』 卷三 塔像四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姣貞者嫉妬毛娘 多置酒飲毛娘 至醉潛昇去北川中 舉石埋殺之 其徒罔知去處 悲泣而散 有人知其謀者 作歌誘街巷小童 唱於街 其徒聞之 尋得其尸於北川中 乃殺姣貞娘 於是大王 下令廢原花

43) ‘누구는 누구와 무엇 했대요’에서 ‘누구’와 ‘무엇’은 담당층의 변경욕구에 따라 얼마든지 신축적이다. <서동요>처럼 ‘-요’ 계통의 노래의 가사가 담당층에 의해 변경되는 사례는 본고의 <풍요> 관련 논의에서 다룰 것이다.

44) 朴魯璋,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309쪽에 따르면 이 노래는 근자까지 아동들의 세계에서 널리 불려오던 “얼레걸레”類의 童謠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개사하여 <서동요>를 만들었고, 노래를 퍼뜨리기 위해 서울의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 제작자로 흡수하였다. 그러자 노래는 그 자체의 전파력인 ‘소문거리’가 되어 아이들의 ‘발설 본능’에 얽혀 동요로서 전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서동요>가 설화나 특정인물로부터 유리되어, 그 자체의 생명력에 따라 변용·발전되어 갈 바탕이 형성된<sup>45)</sup> 것이다.

요컨대 <서동요>는 기존의 동요에 ‘누구’와 ‘무엇’을 변개시킨 노래이다. 그리고 <서동요>는 신라왕실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백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변개 시기는 관련 기록문의 내용처럼 백제 무왕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요나 민요의 변개는 상황에 따라 항상 가능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작과 적층성은 구비 전승하는 동요나 민요의 한 특성이다.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향가 중 <서동요>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맺고자 한다.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은 설화적이다. 마를 캐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薯童이 계락을 써서 공주를 아내로 삼아 신분이 상승한 이야기 속에서 이 노래가 ‘사건 전환의 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백제의 입장에서 서동설화가 형성되고, 신라의 관점으로 변형되어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 결합되었다. 『삼국유사』의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은 미륵사 창건 연기담에 중점을 두어 기술되는 가운데, 무왕과 관련이 있는 서동설화가

함께 결합되었다. <서동요>는 서동의 신분이 상승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건 전환의 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기록문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형성과정을 결론지었다.

<서동요>는 기존의 동요에서 ‘누구’와 ‘무엇’을 變改시킨 노래이다. 改詞의 계기는 백제와 신라가 역사적 긴장기였다는 점에서 찾아 보았다.

변개 시기는 <서동요> 관련 서사 기록문의 내용처럼 백제 무왕 때로 보아야 한다. 동요나 민요의 변개는 상황에 따라 항상 가능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동요나 민요의 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동요>의 작자는 서동이며 현전하는 노래로 최종 개사된 시기는 백제 무왕 때라 할 수 있다. ‘歌’는 악기의 반주가 따르고 곡조가 있는 노래이고, ‘謠’는 단지 부르는 노래이다. ‘-요’ 계통에 속하는 노래의 작자를 확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은 개인 창작이 아닌 공동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덧보탠다면, 『삼국유사』의 ‘무왕’조에서 찬술자가 기록하고자 한 중심 내용은 <서동요>의 형성 배경이 아니라 미륵사 창건 연기담이다.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무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와 관련된 노래로 전하는 <서동요>를 끼워 넣었다고 추정한다.

#### 참고문헌

『三國遺事』

『三國史記』

金成基, 「無等山圈 詩歌文學의 形成에 대한 研究」, 『전통문화연구』 6, 1999.

김종우, 서동요 연구,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8.

김종진,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27,

45) 張成鎮, 「薯童謠의 형성 과정」, 『韓國傳統文化研究』 第2輯,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233쪽. 張成鎮은 <서동요>가 서동이 창작한 동요가 민요화하였다고 논하고 있어,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동요를 변개하였다는 필자의 견해와 다른 면을 보인다.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 朴魯埵,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 史在東, 『薯童說話研究』, 『鄉歌麗謠研究』, 黃淇江 外 編, 二友社, 1985.
- 서철원, 「<薯童謠> 傳承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 『古詩歌研究』 第17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6.
- 신영명, 「<서동요>의 역사적 성격」, 『우리文學研究』 21집, 우리文學研究會, 2007.
- 張成鎭, 「薯童謠의 형성 과정」, 『韓國傳統文化研究』 2, 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 정운채,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인문과학논총 28』,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1996.
- 조홍욱, 「<서동요> 작자 재론」, 『語文學論叢』 24,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5.
- 황폐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투고일 : 2009. 6. 30. 심사일 : 2009. 7. 16. 심사완료일 : 2009. 8. 11.>

## Abstract

### The Formative Process of <Seodong-yo>

Ryu, Byong-yoon

This paper focuses and develops its discussion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eodong-yo>, one of the Hyang-ga(鄉歌, folk songs, mainly songs of Shilla dynasty). The record concerning this song is narrative literature. It is a story about Seo-dong who dug up and sold yams as a means of living, and how he came up with a plan to marry the princess and eventually raised his social status. In the story, <Seodong-yo> functions as a turning point. The following is a conclusion regarding the formative process of <Seodong-yo> after examination of the record concerning this song.

Based on the records of Samguk-Yusa(三國遺事, Remnants of the Three Kingdoms), <Seodong-yo> is presumed to be the earliest song created amongst the existing Hyang-ga.

<Seodong-yo> is a song which altered the 'who' and 'what' from a pre-existing nursery rhyme. Nursery rhymes and folk songs can constantly be modifi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this process occurs even to the present.

It is quite possible to presume that the alteration of this song took place around the period of Mu Wang(武王, king Mu) of Baek-Je dynasty as mentioned in the records. This can be sought out from the background when the alteration took place, a violently tensed period between two dynasties, Silla and Baek-je.

As it seems to be Seo-dong who changed the lyrics of this song,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formation of the present <Seodong-yo> is the period of Mu Wang of Baek-je dynasty. 'Ga'(歌) is a song which has a melody and is accompanied by musical instruments, and 'Yo'(謠) is a song that is simply sung. It is rather impossible to confirm the writer of a 'Yo'(謠) as they are usually the work of many people. Altering the lyrics is quite common. So, it can be presumed that such types of nursery songs were originated a remarkably long time ago.

In addition, what Il-yeon, the editor of Samguk-yusa, wanted to impart in the 'Mu Wang' section was not about the forming of <Seodong-yo> but the detail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temple known as Mireuksa. While he was recording the establishment of Mireuksa and stories related to Mu Wang, he added <Seodong-yo>, a song that was spread by word of mouth, as it had relevance with Mu Wang.

Key words : Seodong-yo, formative process, Hyang-ga, altering the lyrics, Mu Wang